백금남 소설

# 아디카야의 검 13



▶한줄요약
깨달음을 얻은 싯달타 왕자가 붓다가 되어 궁으로 돌아오고, 붓다의 설법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출가의 뜻을 밝혔다.

## 붓다가 되어 궁으로 돌아온 싯달타

뉴델리에서 며칠 ②

아디카야의 검을 찾아서

1 갈림길

그가 돌아온다는 소문이 성안에 퍼지기 시작하자 온통 나라는 축제 분위기였다. 그는 본시 이 나라의 왕자였고 왕자가 성인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는 전륜성왕이 될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출가하여 이제 세상을 구할 등불을 들고 돌아온다고 했으니 들뜨지 않는 이가 없었다.

물론 그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왕위를 넘보며 언제나 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촌 수라다나 그의 이복동생인 난타 등이 그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소문을 듣고 은근히 그를 시기하고 있던 학파들도 있었다.

성자는 제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운 법이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코 흘리는 모습도 보였을 것이고 어리석은 짓도 보였을 것이고 못 볼 짓도 많이 보였을 것이다. 더욱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곧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스스로 가진 불성(佛性)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붓다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이다. 그런 이들은 언제나 편협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항상 소중한 것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나중에야 "어 맞네!"라며 무릎을 치는가 하면 "그런가!" 하고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렇게 유명하고 이름난 이라면 뿔이라도 나거나 자신과는 달라야 할 터인데 만나 보니 그도 똥 싸는 인간이요. 자신과 똑같았으니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렇기에 입을 비쭉이길 좋아하는 것이다. 그따위 녀석이 무슨….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었겠느냐는 것이다.

인간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수성인간(獸性人間)-성정(性情)이 개발되기 전의 인간. 용성인간(勇性人間)-성정이 짐승의 상태에서 벗어난 인간. 신성인간(神性人間)-성정이 신적인 단계에 이른 인간. 문제는 수양이 좀 된 사람의 행동거지다. 수양은 농익어야 한다. 익다가 말면 성정은 더욱 사납다. 입을 비쭉일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막연한 환상을 깨고 싶어 한다. 바로 용성인간이 그들이다. 좀 배웠다는 인격의 속성은 짐승의 성정보다 더욱 악랄하다. 환상이 깨어지면 상대의 실망은 더 커진다는 것을 영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성의 경지에 이르면 그 환상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 거기에 현자의 위대성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있어 환상은 깨어지기 마련이지만 현자는 그 환상을 통해 그를 제도한다. 그렇다고 현자가 금계(禁戒)를 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현자도 화가 나면 화를 내어 제자를 나무란다. 현자도 인간이다. 최고의 깨달음(無生法忍)을 얻었다 해도 삼계(三戒) 밖에서는 금계를 헌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내거나 꾸짖거나 칭찬하기도 한다. 하지만 삼계 안에서는 탐욕과 성냄과 금계를 허는 일이 없다. 이것은 중생의 측면에서 보면 금계를 허는 것 같지만 붓다는 삼계 안에 있으므로 금계를 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석가모니 붓다의 친족 중에서도 그를 업신여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에는 난타(難陀)라는 사람도 있었다. 난타는 붓다의 이복동생 되는 사람이다. 참으로 잘생긴 사내였는데 그의 아내 손타라(孫陀羅) 역시 용모가 뛰어난 미인이었다. 난타의 몸은 금비와 같았으며 서른 가지 몸매(三十相)를 갖추었는데 석가모니 붓다보다 네 손마디만큼 키가 작았다.

난타는 아내 손타라(孫陀羅)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다. 틈만 나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 했고 죽을 때도 함께 죽자며 그녀의 곁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석가모니 붓다가 고국을 찾았을 때 난타는 왕자로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다. 가시(迦尸)에서 나오는 최상의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손타라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는 세 개나 되는 궁전에서 살았다. 봄에는 봄 궁전, 여름에는 여름 궁전, 가을 겨울에는 가을 겨울 궁전에서 살았다. 비가 오는 여름철에는 노래와 춤을 즐기고, 꽃이 피는 봄에는 꽃동산에서 잠을 자고, 낙엽 지는 가을과 눈이 오는 겨울에는 따뜻한 온천물에서 물고기처럼 헤엄쳤다.

그렇기에 옛날의 왕자가 붓다가 되어 돌아온다는 소문이 온 나라 안을 술렁이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개의하지 않았다. 아내 손타라와 이제 막 낳은 아들과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온 나라가 붓다께서 오신다고 야단인데 정말 괜찮으세요? 마중이라도 나가 봐야 하는 도리이지 않을까요?

손타라 역시 남편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주위의 눈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말했다.



-알 수가 없어. 왜 그분이 궁을 떠나 구걸하는 수행승이 되었다가 이제 돌아오는지…?

-구걸승이 아니라 붓다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유의 신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붓다가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을 깨달아? 삶의 이치를 깨달아? 생사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생사의 그늘을 뛰어넘을 수 있지? 형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이야. 중생을 현혹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붓다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로서는 당연한 회의였다. 손타라는 주위의 눈도 있고 해서 계속 난타의 등을 떠밀었다.

-아무튼 가 보세요. 주위의 눈도 있고 하니.

난타는 손타라와 있고 싶었으나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부왕이나 모후나 대신들이나 하인들이나 하나같이 들떠 웅성거리고 있었다.

-어리석은 사람들.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사람을 금의환향이라도 하는 양 저렇게 맞을 준비 하고 있다니….

그는 후원을 향해 걸었다. 후원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서기가 그를 사로잡았다. 무성한 전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그 옛날 싯달타 형님과 함께 이곳을 거닐던 때가 떠올랐다. 싯달타 형님과 모여 앉아 코코넛 과자를 즐겨 먹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 그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짓눌렀다. 후원을 돌아 잔디가 편편하게 깔린 동산으로 나가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그들도 싯달다 형님을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잠시 후 석가모니 붓다가 도착했다는 전갈이 왔다. 난타는 내키지 않았지만, 터덜터덜 내궁을 향해 걸었다. 이미 궁 안은 붓다가 되어 온 싯달타를 만나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난타는 멀리서 그 옛날의 싯달타 형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머리를 자르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 분명 그는 그 옛날의 싯달타 형님이 아니었다. 볼품없이 변해버린 중늙은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이상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라후라를 돌아보는 싯달타 형님의 눈가에 만감이 어리는 것을 난타는 분명히 보았다. 그에 부채질이나 하듯 한 여인의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가물거리며 일어났다. 바로 싯달타 형님이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야쇼다라 비의 모습이었다. 아름다운 자태, 그 자태를 살포시 옷깃 속에 감추고 그녀는 싯달타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를 마주 바라보는 싯달타 형님의 눈가에 따뜻한 웃음이 스쳤다. 출가하기 전만 하더라도 싯달타 형님에게는 야소다라 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손타라를 사랑하듯이 그도 인간인 이상 어찌 저 아름다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으랴. 분명히 세상의 그 무엇도 그녀보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선업도 어떠한 죄업도 지을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 아닌가.

그런데 그는 그것을 버리고 갔다. 오히려 갓 태어난 자신의 핏덩이가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자라 하여 라후라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떠났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것이다.

-보아라, 아들아, 저분이 네 아버지란다. 가서 인사를 드리려무나.

야쇼다라 비가 아들 라후라의 등을 밀며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난타는 싯달타 형님을 예전에 자주 거닐던 풀밭에서 만났다. 옛날을 생각하듯 풀밭을 한동안 말없이 거닐던 붓다가 그윽한 눈길로 난타와 아나율을 돌아보았다.

-난타 벌써 어른이 되었구나.

-싯달타 형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가 봅니다.

붓다가 빙그레 웃었다.

그때 뒤를 따르던 중늙은이 제자가 나섰다.

-말을 삼가세요. 형님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붓다이십니다.

그는 난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엄숙할 수 없었다.

그때 붓다가 제자를 말렸다.

-사리풋드라야, 그만두어라.

붓다는 그렇게 말하고 난타를 따뜻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난타야, 세상은 변하는 것이 아니더냐.

-기억납니다. 이곳에서 놀던 때가.

붓다라고 불러야 할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그렇게 말했는데 붓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인간인데 어찌 옛날이 그립지 않겠느냐.

붓다가 밤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 바라보던 그 별이 빛을 열고 있었다.

다음 날 난타는 이제 형님이라 부를 수도 없는 붓다의 설법을 들었다. 그가 설법하는 사이 난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빛이 붓다를 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그윽하고 거룩한 어떤 현상이었다. 어떤 현상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었다. 붓다는 예전에 보았던 싯달타 형님이 아니었다.

아아, 황금처럼 빛나는 저 찬란한 자태. 헌 누더기를 입은 보잘것없는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난타는 붓다의 설법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왜 형님이 혈육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저런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제야 뭔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난타는 손타라 곁으로 돌아왔지만 이상스러운 기운이 좀처럼 잊히지 않았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긍지라는 말이 계속 입가에서 맴돌았다. 비로소 긍지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았다.

그래서일까?

주위의 사람들이 출가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친인척이 귀의할 뜻을 밝혔다. 난타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싯달타 형님의 양모요 자신의 어머니인 교담비가 귀의할 뜻을 비쳤고 형님의 아내였던 야소다라, 아들 라후라, 밧디야, 아나율 심지어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었던 수라다까지 출가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하나 같이 그렇게 나서고 있었지만, 난타는 도저히 출가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었다. 출가 소리만 들어도 사랑하는 손타라가 눈에 밟혔다. 손타라도 그것을 눈치 챘는지 더욱더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며 애달픈 소리로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계속〉



'아바타 명상' 월호 스님이 찾아낸
간화선 대표 화두 '이 뭐꼬?'의 답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직 '이것뿐'!

고정된 실체로서 '나'는 없다.
걸어갈 때 걸어가고, 머무를 때 머무르며,
앉아 있을 때 앉아 있을 뿐.
이렇게 살면 그대로 '생사해탈',
무한한 가능성의 '나'로 거듭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즉각적인
마음의 평안으로 안내하는
세 가지 명상의 모든 것

온갖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법
아바타 명상

중생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
바라밀 명상

부처님처럼 일생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
행불 명상

월호 스님 수행 법문 결정판!

월호 지음 | 312쪽
18,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홈페이지 www.bulkwang.co.kr